

# 도서관에 고립된 로봇과 소년의 우정

광주시립극단 '리보와 앤'

29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출장연극 시리즈' 두 번째 작품  
어린이문학상 대상 동명 소설 원작  
현대 사회에 '소통과 연결' 메시지

"출근한 직원 0명, 방문객 0명, 사람과의 소통 0%.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사람이 사라진 도서관, 안내 로봇 '리보'와 책 읽어주는 로봇 '앤'만이 그곳에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한때 북적이던 어린이 자료실은 정적에 잠기고, 깜빡이는 초록색 비상구 유도등만이 그들의 곁을 지킨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 이들을 기억하는 소년 도현이 찾아온 것. 리보, 앤 그리고 도현의 우정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29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연극 '리보와 앤'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시민친화형 기획 '출장연극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은 '오스카와 장미할머니'에 이은 작품이다. 연극의 매력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시리즈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작품은 제23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어윤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여파로 폐쇄된 도서관을 배경으로, 외부와 단절된 두 로봇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안내 로봇 '리보'와 책 읽어주는 로봇 '앤'은 소통물이 떨어지며 자신이 자신의 감정 표현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감정을 배워야 하는데 사람과 만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로봇 친구들을 잊지 않은 소년 '유도현'이 찾아오면서 다시 새로운 감정들을 배워나가게 된다.

로봇이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리보와 앤은, 명량하면서도 진실한 대화를



광주시립극단의 출장 연극 시리즈2 '리보와 앤'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2에서 시작된다. 공연 출연진의 모습. <광주시립극단 제공>

통해 관객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간다. 감정을 배워가는 리보의 모습은 설정값과 경험을 더해 사회성을 익혀 나가는 10대 청소년을 떠올리게 하며, 연결의 본능과 그리움의 감정을 되짚게 만든다.

작품은 또 단순한 우정이나 성장담을 넘어, 재난 속 '남겨진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깊은 공감의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 관객들은 리보와 앤이 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을 끊임없는 대화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연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김지훈 연출가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소통과 연결"이라며 "리보가 고립 속에서 감정을 익히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은 29일 ACC 공연을 시작으로, 7월 4일 북구문화센터, 6일 남구 문화예술회관, 11일 첨단 디자인진흥원 이벤트를, 16일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이어진다.

7세 이상 관람 가능. 전석 5000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산책

목포문화원, 11월까지 인문문학강좌...수강생 시화전도

헤르만 헤세, 버나드 쇼, 알베르 카뮈, 파블로 네루다, 밥 딜런, 한강 등.

세계의 독자들이 좋아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이다. 뛰어난 작품으로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문화예술에 기여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강좌가 마련됐다.

목포문화원은 오는 11월까지 다목적실에서 인

문문학강좌 '석연경<사진>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산책'을 진행한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석연경 연경인문문화예술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석 시인은 수강생들과 함께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 작품을 감상하며 생애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들이 직접 시를 창작해 종강 때는 시화전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의는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진행되며 목포문화재단이 후원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목포문화원 문의.

한편 석 시인은 시집 '독수리의 날들', '섬광, 쇠빙산' 등 시집과 순천시찰 시사집집 '동근 겨울', 힐링잡언시집 '술길', 시평문집 '생태시학의 변주'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민요·판소리·굿' 남도소리의 미학

'삼부작' 26일 서울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서 첫 무대

남도소리의 미학을 절제된 구성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풀어내는 무대가 서울에서 열린다.

전통 공연 '삼부작(三부作)-남도소리로 세 갈래의 작품을 그리다' 첫 무대가 서울 국립국악원 풍



왼쪽부터 김나영(판소리), 김은수(거문고), 서은영(가야금). <아트플랫폼 유연 제공>

류사랑방에서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진다. 민요, 판소리, 굿이라는 세 갈래의 남도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원형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실험적 무대다.

공연은 이태백 명인의 문화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여성 국악인 김나영(판소리), 김은수(거문고), 서은영(가야금) 세 사람이 주축이 돼 마련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이자 현역 연주자로 활동 중이며, 진도 출신의 남도음악의 대가 이태백 명인의 문화에서 만나 수년간 호흡을 맞추며 예술성을 키워왔다. 이태백 명인 역시 이번 공연의 지도와 구성으로 참여했다. 타악에 김태영, 해설에 윤종강이 함께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했다.

첫 순서로는 남도 민요 '달타령', '봄노래', '동해바다'가 펼쳐진다. 슬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감정을 담아낸 이 곡들은 남도 음악 특유의 정서와 언어를 바탕으로 역설적 아름다움을 전한다. 이어지는 '적벽가' 중 '동남풍 비는 대목'과 '적벽대전'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판소리가 각기 다른 역할로 극적 긴장감을 구현하며 총체적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마지막 곡은 진도씻김굿 중 '제석거리'로, 전통 의례의 형식을 차용하되 새로운 연출로 재해석한 장면이다.

한편 '삼부작(三부作)' 공연은 세 명의 여성 국악인이 전통과 현재를 잇는 탐구와 창조의 여정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어른들이 들려주는 동화 한 편

색동회 광주전남지부, 23일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동화구연대회'

어른의목소리 로 들려주는 동화 한 편이 아이들의 상상력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다. 어린이를 위한 순수한 이야기의 힘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제27회 어른동화구연대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회의 모습. <색동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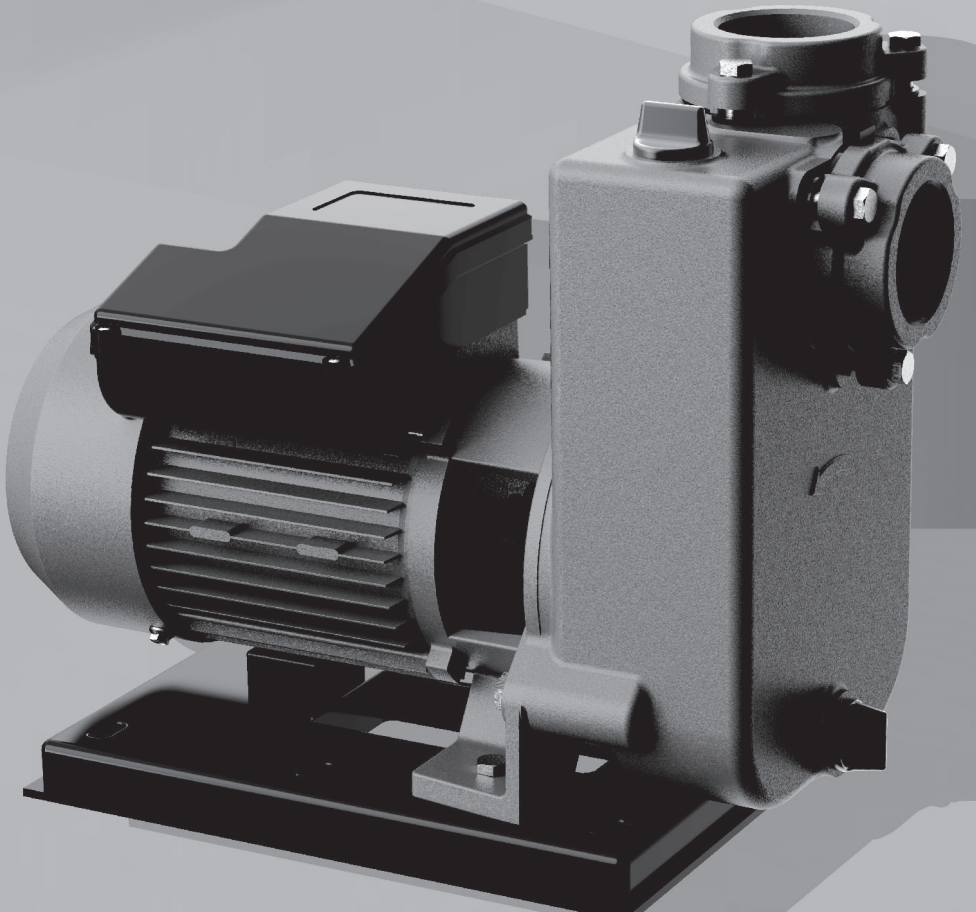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색동회광주전남지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너른마루에서 '제27회 어른동화구연대회'를 연다. '동화를 사랑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에게는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되새기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올해 대회에는 30여 명의 참가자가 출전해 5분 이내 분량의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등을 구연한다. 참가자들은 포박포박 정성껏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만의 표현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어린이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광주시장상, 전남도지사상, 광주교육대 총장상, 광주 5개 자치구청장상 등이 수여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동화구연가' 자격도 주어진다. 이후에는 도서관, 문화센터, 아동센터,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동화구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색동회는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나라 사랑과 어린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매년 어른동화구연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